

# 광주FC, 홈 마지막 경기서 ACLE 1위 탈환 나선다

### 오늘 중국 선화 상대...ACLE 득점 선두 아사니 앞세운 공격 축구 나서

광주FC가 홈팬들 앞에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리그 1위 탈환에 나선다.

광주는 27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상하이 선화(중국)를 상대로 ACLE 리그스테이지 5차전을 갖는다.

올 시즌 홈에서 열리는 마지막 경기이자 1위 자리를 노리는 무대다.

9월 요코하마 F.마리노스(일본)와의 ACLE 데뷔전 7-3 대승을 시작으로 3연승을 달렸던 광주는 지난 5일 고베 비셀(일본)과의 원정 경기에서 0-2로 지면서 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광주는 이번 홈경기 승리로 첫 아홉 도전 무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리그 일정을 병행하면서 체력 관리에 비상이 걸렸던 광주는 A매치 휴식기를 보내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는 지난 24일 전북현대와의 리그 최종전에서 회복된 체력을 바탕으로 우세한 경기력을 보였다. '안방'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 점도 반갑다.

광주는 지난 10월 22일 조호르 다를 탁짐(말레이시아)과의 홈 3차전을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아닌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치렀다. 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가 좋지 않아 원정 같은 홈 경기를 치러야 했다. 이번에는 잔디 상태가 개선된 안방이 무대가 되면서 광주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 정밀한 공격 축구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올 시즌 중국 슈퍼리그 준우승팀인 상하이 선화의 골문을 두드릴 아사니에 시선이 쏠린다. 아사니는 ACLE에서만 6골을 터뜨리면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A매치를 치르고 복귀한 그는 전북전 휴식을 취하면서 ACLE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했다.

아사니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올 시즌 '20실점'으로 중국 슈퍼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한 상하이 선화의 골대를 노리게 된다.

이희균, 정호연도 아사니와 호흡을 맞춰 공격을 이끌게 된다.

신창무도 연속 득점을 노리고 있다. 신창무는 전

북과의 시즌 최종전에서 과감한 돌파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직접 키커로 나서 득점에도 성공했다.

수비에서는 눈에 띄게 기량이 성장한 조성권이 눈에 띈다. 뛰어난 피지컬을 앞세운 조성권은 파이팅넘치는 플레이로 상대의 주공격 루트인 측면 돌파 저지에 나서게 된다.

베테랑 센터백 김경재는 상하이 선화의 외국인 공격수들을 봉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으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맡게 된다.

상하이 선화는 2승 1무 1패(승점 7점)를 기록하면서 ACLE 리그 스테이지 5위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리그에서 17골을 기록한 안드레 루이스가 광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다. 공격의 핵심인 그는 지난 9월 포항전에서 골을 기록하는 등 ACLE에서 3골을 장식하고 있다.

또 다른 외국인 선수인 마렐레와 테세이라도 주의해야 할 선수다.

리그 일정을 마무리한 광주가 2024년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승리를 신고하고 ACLE 질주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2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중국 상하이 선화를 상대로 ACLE 리그스테이지 5차전을 치른다. ACLE에서 6골을 터뜨린 아사니가 승리를 위해 공격 전면에 선다. <광주FC 제공>

## 전남당구연맹 서서아, 전일본포켓볼선수권대회 우승

### 김가영 이후 9년 만에 정상 차지

전남당구연맹 서서아(22·세계랭킹 12위)가 '제57회 전일본포켓볼선수권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한국선수가 전일본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5년 김가영 이후 9년 만이다.

서서아는 24일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에 있는 아마가사키문화센터에서 열린 포켓9볼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중국의 왕샤오통(세계 31위)을 세트스코어 9-2로 꺾고 정상을 올랐다.

왕샤오통은 지난 9월에 열린 차이나 오픈 16강전에서 서서아에게 패배를 안겨준 상대다. 서서아는 이번 대회에서 일방적으로 왕샤오통을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서서아는 32강에서 모토히로 레이코(일본)를 9-2로 꺾은 뒤, 16강에서는 장무안(중국)을 상대로 9-6으로 승리했다.

이후 8강에서 타니 미아나(일본)를 9-0으로 제압한 서서아는 준결승에서 일본 랭킹 6위 오쿠다를 9-0으로 완파하며 연속 퍼펙트스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서서아는 1주일 전인 지난 17일에는 '세계여자포켓10볼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의 12년 만에 준우승을 달성했던 바 있다.

서서아는 오는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서서아(왼쪽 두 번째)가 지난 24일 전일본선수권대회 포켓9볼 우승을 차지했다. <일본프로당구협회 제공>

'2024아시아10볼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전일본선수권대회는 지난 1967년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대회로, 서서아에 앞서 한국의 김가영이 여자부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김가영은 서서아가 17살부터 인연을 이어온 스승과 제자 사이기도 하다.

서서아는 "올해가 가기 전에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좋다. 선수권 전에 당구가 잘 안돼서 고민이 많다고 가정 선생님께 상담을 받기도 했는데 당시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게 위로와 힘이 많이 됐다"며 "한 해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다음 카타르 대회도 결과가 어떻든 재미있는 기분으로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원정 최고 득점·최다 메달 기록' 전국장애인체전 전남선수단 해단식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남 선수단이 해단식을 가졌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6일 전남도체육회관에서 명장환 전남도행정부지사, 이광일 도의회 부의장, 도장애인체육회 임원과 선수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은 지난 10월 막 내린 체전 참가 결과 보고, 선수단기 반환, 감사패 등 시상과 축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은 제44회 대회에서 총 180개(금50·은55·동75) 메달과 총득점 10만 5663점을 따내 원정 최고 득점과 최다 메달을 기록, 종합 9위에 자리했으

며 17개 시도 중 모범 선수단에게 주어지는 문체부장관배 으뜸선수단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남은 역도와 육상, 사이클 종목에서 한국신기록 6개, 사격에서 이윤리(완도군청)가 대회신기록 1개를 세웠다.

4관왕을 차지한 육상 트랙 김정하(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허운정(사이클·전남장애인사이클연맹), 정겨울(배드민턴·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3관왕을 차지하며 전남 선전에 힘을 보탰다.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에게 수여하는 우수선수상은 사이클 박솔기(한전KDN), 육상 트랙 김

정하와 대회 참가 이래 첫 결승 진출을 이룬 지적 축구 '장단 멤버' 권봉춘(전남장애인축구협회)에게 돌아갔다. 또 3년 연속 카누 종합 우승을 차지한 전남장애인카누선발팀과 전남장애인사이클연맹, 전남장애인농구연맹이 입상단체상을 수상했다.

이광일 부의장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의 위원장, NH농협은행 전남도청지점 서용현 지점장은 전남도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제45회 대회는 오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로 부산에서 개최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무안초,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우승

무안초 핸드볼 꿈나무들이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무안초 핸드볼 선수단은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무안초는 조별 예선 1위로 6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뒤 부전승으로 오른 4강에서 대구사수초를 24-17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무안초는 나주 금천초를 상대로 14-11로 승리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무안초는 올해 출전한 4개의 전국 핸드볼 대회에서 모두 입상하는 기록도 세웠다.

지난 4월 전국중별핸드볼대회 여초부 3위,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 준우승, 7월 태백산기 전국종합

핸드볼대회 여초부 준우승을 차지한 무안초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기분 좋게 올 시즌을 마무리했다.

박해진 감독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작년 이어 우승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핸드볼을 할 수 있게 하는 사기 진작이 된 것 같다"며 "대회가 있을 때마다 늘 응원 와주시고 꾸준히 지원해 준 무안군과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전용 구장 등 지역 핸드볼 인프라가 많이 확대돼서,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다. 동계 훈련도 열심히 해서 내년 소년체전에서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농구 i-League 챔피언십' 유소년 최강자 가린다

### 30일부터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 등 광주 팀케이·HIM 농구교실 등 출전

전국 유소년 5x5 농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2024 농구 i-League 챔피언십'이 개최된다.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 등 5개소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4개 지역 리그 운영 중별 1위팀을 대상으로 치러지며, 4개 중별(U10·U12·U15·U18) 선수 및 관계자 9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농구협회가 주관하

는 이번 대회는 3팀씩 조별 예선리그를 치른 후 각 조 상위 2개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해 중별 결승전을 갖는다.

광주·전남에서는 최근 막 내린 '2024 전남 농구 i-League'에서 중별 우승을 차지한 팀케이 농구교실(U10)·HIM 농구교실(U12)·방림농구클럽(U15, U18)과 '2024 전남 순천 농구 i-League' U18 정상에 오른 광주 Team The One이 지역 대표로 출전해 기량을 뽐낸다.

대회 모든 경기는 유튜브 채널 'i-League 농구' 생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창년곡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